

소쇄원 (瀟灑園)

鄭在鏞

<文化財管理局 文化財企劃官>

目次

- | | |
|---------------------|---------------------|
| 1. 序 | 6. 1574年の瀟灑園 觀覽記 |
| 2. 史蹟指定 事由 | 7. 現在 남아있는 瀟灑園의 原形 |
| 3. 作者와 造成 時期 | 8. 原形이 變形되었거나 없어진 것 |
| 4. 下書 金麟厚의 瀟灑園 四十八詠 | 9. 瀟灑園의 構成要素 |
| 5. 瀟灑園圖 | 10. 結語 |

1. 서(序)

1983年 7月 20日 전남담양군남면(全南潭陽郡南面) 지곡리(芝谷里)의 소쇄원(瀟灑園)이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되었다.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하는 지정기준(指定基準)에 보면 주택(舊宅) 원지(苑池) 정천(井泉) 수석중(樹石中) 역사적 학술적 관상적 가치가 크면 사적(史蹟)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경유적(造景遺蹟)이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나라의 조경유적(造景遺蹟)이 사적지(史蹟地) 내(內)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개 있다.

예를 들면 신라(新羅)의 안압지(雁鴨池)가 동궁(東宮)의 궁지(宮址)인 임해전지(臨海殿址)에 포함되어 있고 창덕궁(昌德宮) 등(等) 조선왕궁(朝鮮王宮)의 원유(苑圍)가 오대궁내(五大宮內)에 포함되어 있다.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조경유적(造景遺蹟)이나 경주(慶州) 포석정지(飽石亭地), 불국사(佛國寺) 구품련지(九品蓮池), 경주계림(慶州鷄林), 서출지(書出池) 등(等)은 모두 조경적(造景的) 측면에서 지정(指定)된 것이라기보다 이궁지(離宮址)나 사역(寺域) 또는 전설지(傳說地)로 지정되어 있다. 조경적(造景的) 측면에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은 부여의 백제(百濟) 궁남지(宮南池) 하나였던 것이나 이도 원지(苑池)라는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가(民家)의 조경유적(造景遺蹟)은 민가건축물(民家建築物)을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로 지정(指定)하면서 포함된 것이 있다. 경북 영천군 임고면 선원동의 정용준씨택(鄭容俊氏宅)의 연지(蓮池)와 연정(蓮亭), 경북 영양군 입석면 연당리의 서석지(瑞石池), 경북 달성군 하빈면 묘동의 하엽정(荷葉亭), 강릉시 운정동의 선교장내(船橋莊內) 활래정(活來亭)과

방연지(方蓮池) 등(等)이 있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된 것 중에 단순한 수목이 지정된 것도 있으나 함양(咸陽) 상림(上林)은 최치원의 조원유적(造苑遺蹟)이다.

사적(史蹟) 및 명승(名勝)으로 지정(指定)된 것으로 내성유곡(乃城酉谷) 권충재 관계유적 등(權冲齋關係遺蹟等)도 조경(造景) 유적(遺蹟)의 하나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정되어 있던 조경유적(造景遺蹟)은 조경학적(造景學的) 측면에서 정립되고 연구(研究)된 것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측면으로 연구 보존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유적(遺蹟)의 발굴조사(發掘調査)에 있어서도 고분(古墳)이나 성지(城址), 사지(寺址) 궁지(宮址), 패총(貝塚) 등의 학술적(學術的) 발굴조사(發掘調査)는 많이 있었으나 원지(苑池)나 조원(造苑)의 조사연구사업(調查研究事業)은 미진(未進)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1970年代 이후에 경주(慶州) 안압지(雁鴨池)의 발굴로 신라조경(新羅造景) 유적(遺蹟)의 본격적인 발굴조사연구(發掘調査研究)가 있었고 1983년 부여 정림사지(定林寺址) 발굴(發掘)에서 절 앞의 원지(苑池)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지(寺址)나 성지(城址) 궁지(宮址)의 발굴시(發掘時)에 조경유적(造景遺蹟)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70年代 이후 급격히 발전하는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문화재(文化財) 보존(保存)은 단순히 단위문화재(單位文化財) 하나만을 지정 보존하는 근시안적(近視眼的) 관점에서 문화재(文化財)의 종합적 환경보존을 위한 원시안적(遠視眼的) 방향으로 돌려야 할 시기(時期)에 도달하였다. 문화재(文化財) 조화적(調和的) 환경의 보존(保存)없이 문화재(文化財) 하나만의 보존(保存)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時點)에서 한국(韓國)의 전통적(傳統的) 조경유적(造景遺蹟)이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 보호(保護)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번에 지정(指定)된 소쇄원(瀟灑園)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적지정 사유(史蹟指定 事由)

소재지(所在地)는 전라남도(全羅南道) 담양군(潭陽郡) 남면(南面) 지곡리(芝谷里) 76번지(蕃地), 지정(指定) 면적(面積)은 4,060㎡(1,228평,坪), 사적(史蹟) 第304號 「담양(潭陽) 소쇄원(瀟灑園)」으로 지정하였다. 이미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방기념물(地方記念物) 第5號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국가(國家)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로 승격시켜 국가(國家)가 적극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 해 나가기 위하여 사적(史蹟)으로 지정하였다.

지정이유(指定理由)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양산보(梁山甫)(1503~1557)가 조성(造成)한 대표적(代表的) 정원으로 원형(原形)의 보존상태(保存狀態)가 양호(良好)하고 역사적(歷史的) 학술적(學術的) 고증 자료로서 양산보(梁山甫)의 문집(文集)(소쇄원사실(瀟灑園事實) 처사공실기등(處士公實記等))과 고경명(高敬命)의 「유서석록중(遊瑞石錄中)」에 소쇄원(瀟灑園) 관람기록 및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소쇄원사십팔영(瀟灑園四十八詠)」과 1755년에 관각한 「소쇄원도(瀟灑園圖)」 등(等)이 남아 있어 그 원형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작자(作者)와 조성(造成) 시기(時期)

소쇄원(瀟灑園)의 작자(作者)는 양산보(梁山甫)인데 양산보(梁山甫)는 연산군(燕山君) 9년(1503)에 나서 명종(明宗) 12년(1557)까지 55세를 산 학자(學者)이다. 자(字)는 언진(彦鎭) 호

는 소쇄옹(瀟灑翁)이며 그의 나이 15세에 아버지를 따라 상경(上京)하여 당시 사림파(士林派)의 영수(領袖)인 조광조(趙光祖)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하여 17세에 현량과(賢良科)에 급제(及第)하였으나 관직(官職)은 받지 못했다.

1519년 훈구파(勳舊派)인 남곤(南袞) 심정(沈貞)등의 모함으로 신진사류(新進士類)를 몰아내는 기묘사화(己卯士禍)때 능주(綾州)로 귀양가는 조광조(趙光祖)를 따라갔다가 하향(下鄉)하여 지석동(支石洞)의 창암촌(蒼岩村)(현(現) 지곡리(芝谷里))에 은거(隱居)하여 그의 호를 딴 소쇄원(瀟灑園)을 조성(造成)하였다.

그러나 양산보(梁山甫)의 문집(文集) 「소쇄원사실(瀟灑園事實)」에도 소쇄원(瀟灑園)의 조원시기(造園時期)는 명확하지 않다. 정동오(鄭瞳昨) 교수(教授)는 소쇄원(瀟灑園)의 조성(造成)을 1534년 송순(宋純)의 「종제양언진소쇄정(從弟梁彦鎭瀟灑亭)」이란 시문(詩文)과 1540년 이수(李洙)의 「차운증소쇄옹가정경자(次韻贈瀟灑翁嘉靖庚子)」와 1542년 송순(宋純)이 양산보(梁山甫)의 소쇄원(瀟灑園)을 도왔다는 「면앙집, 俛仰集」의 기록으로 1530년을 전후(前後)하는 때에 조성(造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한국조경학회지(韓國造景學會誌) 第2號 1973 양산보(梁山甫)의 소쇄원(瀟灑園)에 대(對)하여 정동오(鄭瞳昨).

맹인재(孟仁在) 문화재전문위원(文化財專門委員)은 양산보(梁山甫)가 창암촌(蒼岩村)에 은거(隱居)하기 시작하는 1519년부터 조성(造成)하기 시작된다 하겠으나, 소쇄원(瀟灑園)의 본격적인 조영(造營)은 그의 학행(學行) 견식(見識)이 원숙(圓熟)해 진 후로 보고 있다. 양산보(梁山甫) 보다 6, 7년 선배(先輩)인 동향(同鄉)의 임석천(林石川)이나 7년 후배(後輩)로 후에 친교가 두터웠으며 사돈이 된 김인후(金麟厚), 또 20년 후배(後輩)인 김성원(金成遠) 등(等) 주변의 한묵(翰墨) 석학(碩學)들과 지적(知的) 교류(交遊)를 통(通)해서 점차 난숙의 도(道)를 깊이 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것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소쇄원(瀟灑園)48영(詠)의 내용이 지니는 구체성(具體性) 즉(卽) 문학(文學) 내지(乃至)는 조형성(造形性)으로서도 어느 정도 그 정신적(精神的) 교류면(交遊面)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박물관신문 1973년 11월 1일 소쇄원(瀟灑園) 맹인재, 孟仁在) 현재(現在) 소쇄원(瀟灑園)을 보면 담장이나 연못 정자 등을 조영(造營)하는 데는 공기(工期)가 5년 이상(以上) 걸릴 것이 없다. 그러나 죽림이나 자미(紫薇) 등(等) 화목(花木)이 성장하여 김인후(金麟厚)의 소쇄원(瀟灑園) 48영(詠)의 시(詩)에 보이는 조화(調和)를 이루기란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양산보(梁山甫)는 1519년에 낙향하여 바로 소쇄원(瀟灑園)을 조성(造成)했다고는 볼 수 없다. 조광조(趙光祖)는 능주(綾州)에 유배된 후 훈구파(勳舊派)의 끈질긴 공격으로 결국 사사(賜死)되었고 양산보(梁山甫)는 자기 스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분격하였을 것이며 또한 모든 예(禮)를 다하였을 것인바 소쇄원(瀟灑園)을 조영(造營)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소쇄원(瀟灑園) 조영(造營)은 이런 상심이 모두 가시어진 후에 학문(學文)의 원숙한 경지에 이르고 주위 석학(碩學)들과 깊은 교류가 있는 시기(時期)가 될 것인 바 1530년을 전후(前後)하는 시기(時期)부터 그가 죽는 1557년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산보(梁山甫)가 창암촌(蒼岩村)에 소쇄원(瀟灑園)을 조영(造營)하게 되는 연유는 「소쇄원사실(瀟灑園事實)」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가 어릴 때 지석(支石)의 계곡(溪谷)에 놀았고 울창한 숲과 죽림 및 계류의 아름다운 경승에 도취되었던 때문이다.

4.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사십팔영(河西 金麟厚의 瀟灑園 四十八詠)

① 소정빙란(小亭憑欄)

소쇄원중경 혼성소쇄정(瀟灑園中景 渾成瀟灑亭)
대수모삼상 측이청룡령(擡輪牟颯爽 側耳聽龍玲)

② 침계문방(枕溪文房)

창명침축정 수석영도서(窓明籤軸淨 水石映圖書)
정사수언앙 묘계인연어(精思隨偃仰 妙契人鳶魚)

③ 위암전류(危巖展流)

계류수석래 일석통전학(溪流漱石來 一石通全壑)
필련전중간 경애천소삭(匹練展中間 傾崖天所削)

④ 부산오암(負山鼇巖)

배부청산중 두회벽옥류(背負青山重 頭回碧玉流)
장년안불변 대각승영주(長年安不抃 臺閣勝瀛洲)

⑤ 석경반위(石逕攀危)

일경련삼익 반한불견위(一逕連三益 攀閒不見危)
진종원자절 태색천환자(塵蹤元自絕 苔色踐還滋)

⑥ 소당어영(小塘魚泳)

방당미일묘 료족저청의(方塘未一畝 聊足貯清猗)
어희주인영 무심수조사(魚戲主人影 無心垂釣絲)

⑦ 고목통류(剝木通流)

위곡통천맥 고저죽하지(委曲通泉脉 高低竹下池)
비류분수대 인갑세참차(飛流分水碓 鱗甲細參差)

⑧ 춘운수대(春雲水碓)

영일잔원력 춘래자견공(永日潺湲力 春來自見功)
천손기상금 서권도성중(天孫機上錦 舒卷壙聲中)

⑨ 투죽위교(透竹危橋)

가학천수죽 임위사욕부(架壑穿脩竹 臨危似欲浮)
임당원자승 득차경청유(林塘元自勝 得此更清幽)

⑩ 천간풍향(千竿風響)

기향공변멸 환중정처호(已向空邊滅 還從靜處呼)
무정풍여죽 일석주생우(無情風與竹 日夕奏笙竽)

⑪ 지대납량(池臺納涼)

남주염열약 독차점량추(南州炎熱若 獨此占涼秋)

풍동대변죽 지분석상류(風動臺邊竹 池分石上流)

⑫ 매대요월(梅臺遙月)

임단대인활 편의월상시(林斷臺仍豁 偏宜月上時)
최련운산진 한야영빙자(最憐雲散盡 寒夜映冰姿)

⑬ 광석와월(廣石臥月)

로와청천월 단장석작연(露臥青天月 端將石作筵)
장림산청영 심야미능면(長林散清影 深夜未能眠)

⑭ 원규투류(垣竅透流)

보보간과거 행음사전유(步步看波去 行吟思轉幽)
진원인미소 공견투장류(眞源人未泝 空見透牆流)

⑮ 부음곡류(否陰曲流)

지척잔원지 분명오곡류(咫尺潺湲地 分明五曲流)
당년천상의 금일부변구(當年川上意 今日否邊求)

⑯ 가산초수(假山草樹)

위산불비인 조물환위가(爲山不費人 造物還爲假)
수세기총림 의연시산야(隨勢起叢林 依然是山野)

⑰ 송석천성(松石天成)

편석래송강 결근송수척(片石來崇岡 結根松數尺)
만년화만신 세축삼천벽(萬年花滿身 勢縮參天碧)

⑱ 편석창선(遍石蒼蘚)

석로운인습 창창선작화(石老雲烟濕 蒼蒼蘚作花)
일반구학성 절의향변화(一般丘壑性 絕意向繁華)

⑲ 탑암정좌(榻巖靜坐)

현애허좌구 정소유계풍(懸崖虛坐久 淨掃有溪風)
불과천당슬 편의관물옹(不怕穿當膝 偏宜觀物翁)

⑳ 옥추횡금(玉湫橫琴)

요금불역탄 거세무종자(瑤琴不易彈 學世無鐘子)
일곡향홍징 상지심여이(一曲響泓澄 相知心與耳)

㉑ 복류전배(復流傳盃)

렬좌석와변 반소수의족(列坐石渦邊 盤蔬隨意足)
회파자거래 잔가한상속(洄波自去來 盞罍閒相屬)

㉒ 상암대기(床巖對碁)

석안초관평 죽림거일반(石岸稍寬平 竹林居一半)
빈래일국기 난박공중산(賓來一局碁 亂雹空中散)

㉓ 수계산보(脩階散步)

담탕출진상 소요계상행(澹蕩出塵想 逍遙階上行)
음성한개의 음료역망정(吟成閒箇意 吟了亦忘情)

㉔ 기수괴석(倚睡槐石)

자소괴변석 무인독좌시(自掃槐邊石 無人獨坐時)
수래경기립 공피의왕지(睡來驚起立 恐被蟻王知)

㉕ 조담방욕(槽潭放浴)

담청심견저 옥파벽린린(潭清沈見底 浴罷碧粼粼)
불신인간세 염정각몰진(不信人間世 炎程脚沒塵)

㉖ 단교쌍송(斷橋雙松)

획획순제수 교변수이송(灑灑循際水 橋邊樹二松)
람전유유사 쟁급차종용(藍田猶有事 爭及此從容)

㉗ 산애송국(散崖松菊)

북령층층벽 동리점점황(北嶺層層碧 東籬點點黃)
연애잡란식 세만기풍상(緣崖雜亂植 歲晚倚風霜)

㉘ 석부고매(石趺孤梅)

직욕론기절 수간삼석근(直欲論奇絕 須看挿石根)
겸장청천수 소영입황혼(兼將清淺水 踈影入黃昏)

㉙ 협로수황(夾路脩篁)

설간창창직 운소노노경(雪幹攢攢直 雲梢嫋嫋輕)
부려락만탁 해대요신경(扶藜落晚籜 解帶繞新莖)

㉚ 迸石竹根(병석죽근)

상근치염진 석상시시로(霜根耻染塵 石上時時露)
기세장아손 정심로경고(幾歲長兒孫 貞心老更苦)

㉛ 절애소금(絶崖巢禽)

편편애제조 시하수중유(翩翩崖際鳥 時下水中遊)
음탁수심성 상망저백구(飲啄隨心性 相忘抵白鷗)

㉔ 총군모조(叢筠暮鳥)

석상수총죽 상비여루반(石上數叢竹 湘妃餘淚斑)
산금불식한 박모자지환(山禽不識恨 薄暮自知還)

㉕ 학저면압(壑渚眠鴨)

천부유인계 청랭일간천(天付幽人計 清冷一澗泉)
하류혼불관 분여압한면(下流渾不管 分與鴨閒眠)

㉖ 격단창포(激湍菖蒲)

한설계방초 능함구절향(閒說溪傍草 能含九節香)
비단일분박 일색관염량(飛湍日噴薄 一色貫炎涼)

㉗ 사침사계(斜簷四季)

정자화중성 청화비사시(定自花中聖 淸和備四時)
모침사경호 매죽시상지(茅簷斜更好 梅竹是相知)

㉘ 도오춘효(桃塢春曉)

춘입도화오 번홍효무저(春入桃花塢 繁紅曉霧低)
의미암동리 여섭무릉계(依迷巖洞裡 如涉武陵溪)

㉙ 동대하음(桐臺夏陰)

암애승로간 우로장청음(巖崖承老幹 雨露長淸陰)
순일명천고 남풍취지금(舜日明千古 南風吹至今)

㉚ 오음사포(梧陰瀉瀑)

부소록엽음 작야계변우(扶疎錄葉陰 昨夜溪邊雨)
란포사지간 환의백봉무(亂瀑瀉枝間 還疑白鳳舞)

㉛ 유정영객(柳汀迎客)

유객래고죽 수성경주안(有客來敲竹 數聲驚畫眼)
부관사불급 번마립정변(扶冠謝不及 繁馬立汀邊)

㉜ 격간부거(隔澗芙蕖)

정식비범휘 한자가원관(淨植非凡卉 閒姿可遠觀)
향풍횡도학 입실승지란(香風橫度壑 入室勝芝蘭)

㉝ 산지순아(散池蓴芽)

장한강동후 풍류식자수(張翰江東後 風流識者誰)
불수화옥회 요간장빙사(不須和玉膾 要看長冰絲)

⑫ 춘간자미(襯澗紫薇)

세상한화훼 도무십일향(世上閒花卉 都無十一香)
하여림간수 백석대홍방(何如臨澗樹 百夕對紅芳)

⑬ 적우과초(滴雨芭蕉)

착락투은전 지앙무취초(錯落投銀箭 低昂舞翠綃)
불비사향청 환련과적료(不比思鄉聽 還憐破寂寥)

⑭ 영학단풍(暎壑丹楓)

추래암학랭 풍엽조경상(秋來巖壑冷 楓葉早驚霜)
적력요하채 파사조경광(寂歷搖霞彩 婆娑照鏡光)

⑮ 평원포설(平園鋪雪)

불각산운암 개창설만원(不覺山雲暗 開窓雪滿園)
계평포원백 당귀도한문(階平鋪遠白 當貴到閒門)

⑯ 대설홍치(帶雪紅樞)

증한화육출 인도만림향(曾閒花六出 人道滿林香)
강실교청엽 청연재설상(絳實交青葉 淸妍在雪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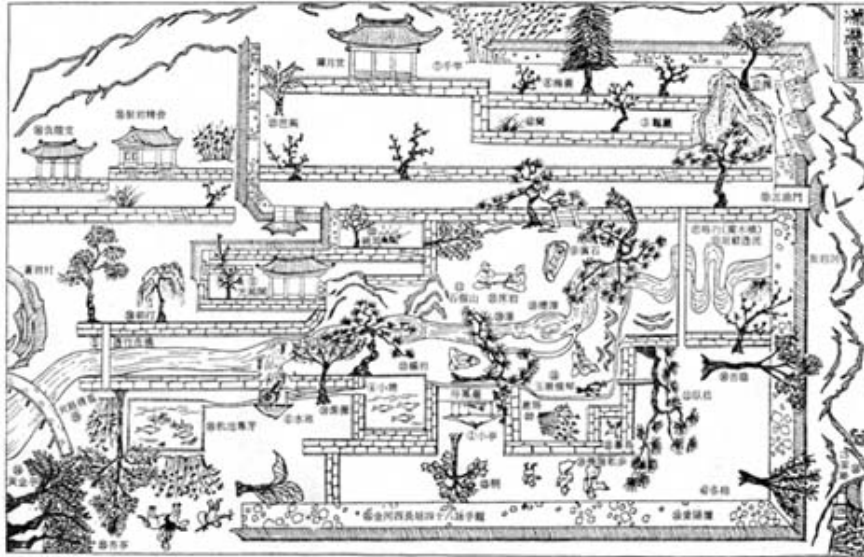
⑰ 양단동오(陽壇冬午)

단진계상동 단상설전소(壇前溪尙凍 壇上雪全消)
침비영양경 계성도오교(枕臂迎陽景 鷄聲到午橋)

⑱ 장원제영(長垣題詠)

장원횡백척 일일사신시(長垣橫百尺 一一寫新詩)
유사열병장 물위풍우기(有似列屏障 勿爲風雨欺)

5. 소쇄원도(瀟灑園圖)



소쇄원도(瀟灑園圖)

소쇄원(瀟灑園)에는 목판(木板)에 새긴 소쇄원도(瀟灑園圖)가 보존(保存)되어 있다. 이 목판(木板)은 가로 35cm 세로 25cm의 크기인데 소쇄원(瀟灑園)의 정원을 조감도 형식의 펼친 그림으로 그려서 새긴 것이다. 목판의 상단에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소쇄원사십팔제영(瀟灑園四十八題詠)이 새겨있고 왼쪽 외곽에 「송정기원후삼을해년청화하완간, 崇禎紀元後三乙亥年清和下浣刊」이 새겨있는데 이는 1755년 4월 하순에 간행(刊行)된 것이다.

오른쪽 외곽에는 「창암촌(蒼岩村) 고암동(古巖洞) 소쇄원(瀟灑園) 제월당(齊月堂) 광풍각(光風閣) 오곡문(五曲門) 애양단(愛陽壇) 대봉대(待鳳臺) 웅정봉(瓮井峰) 황금정(黃金亭) 유우암선생필(有尤菴先生筆)」이라 새겨있다. 우암(尤菴)은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호이다.

이 소쇄원도(瀟灑園圖)는 상세한 투시도인데 하서(河西)의 소쇄원(瀟灑園) 48영(詠)의 오언시(五言詩)를 충실히 표현(表現)하고 있다.

그러면 소쇄원(瀟灑園) 48영(詠)을 연결하여 소쇄원도(瀟灑園圖)의 내용을 살펴본다.

① 소정(小亭)~소쇄원 중간의 작은 연못가에 서 있는 1칸의 초정(草亭)이다. 이 정자는 대봉대(待鳳臺)위에 건립되어 있으며 건너다 바라보면 개울 건너 광풍각(光風閣)이 있고 오곡(五曲)의 계류와 석가산(石假山)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방울 소리처럼 흐르는 계간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던 것이다. 「소정빙란(小亭憑欄)」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② 광풍각(光風閣)~소쇄원 중앙(中央)의 개울가 석단(石壇)위에 남향(南向)으로 서 있는 전면 3칸 측면 3칸의 집인데 중앙(中央) 1칸만이 온돌(溫突)이고 사면(四面)이 모두 개방(開

放)한 마루이다. 선비가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던 집이다.

③ 오암(鰲巖)~ 소쇄원 윗쪽의 오곡문(五曲門) 내의 언덕에 있는 자연암(自然岩)인데 「부산오암(負山鰲巖)」의 제영(題詠)과 관계가 있다. 즉 등에 청산(靑山)을 지고 머리는 푸른 옥류(玉流)가 흐르는 곳에 돌리고 대(臺)와 집이 영주산의 경치보다 좋게 조화(調和)를 이루고 있는 바위이다.

④ 소당(小塘)~대봉대(待鳳臺)와 초정(草亭)이 있는 앞에 자연석(自然石)으로 축조한 방형(方形)의 연못인데 「소당어영(小塘魚泳)」의 제영(題詠)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위가 백보가 못되고 잔잔한 물속에 주인(主人)의 그림자를 희롱하는 물고기가 놀고 무심히 낚시줄을 드리우던 곳이다.

⑤ 투죽위교(透竹危橋)~소쇄원 입구의 아래쪽 계간 위에 설치되어 있는 대나무 다리인데 밑이 뚫려서 보이게 되어 있다.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도 추정이 되는데 「투죽위교(透竹危橋)」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⑥ 수대(水碓)~오곡(五曲)으로 흐르는 계간의 물을 나무홈대로 끌어 대봉대(待鳳臺) 옆 소당(小塘)에 채웠다가 다시 소당의 물을 넘겨서 나무 홈대로 끌어 물 방아를 설치하여 돌게 하였다. 이 물 방아는 1칸 짜리 초정(草亭)속에 설치되어 있다. 「춘운수대(春雲水碓)」의 제영(題詠)과 관련이 있으며 종일 흐르는 물의 힘으로 하루종일 쿵덕쿵 방아 짙는 소리가 소쇄원에 파문졌다 한다.

⑦ 천간(千竿)~제월당(霽月堂) 옆에 있는 한 무더기의 대숲인데 여기서 긴 담장이 시작된다. 「천간풍향(千竿風響)」의 제영(題詠)과 관련되며 무정한 바람이 대나무를 흔들면 저녁에는 생황을 연주하는 음악 소리처럼 운치를 더하던 대숲이다.

⑧ 매대(梅臺)~천간(千竿)에서 시작되는 긴 담의 안쪽 가장 높은 단에 매화(梅花)를 심은 매대(梅臺)가 있는데 「매대요월(梅臺邀月)」이란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숲 끝의 트인 지점에 있는 매화대에 하늘 한쪽으로 달이 떠오르면 여린 구름은 흩어지고 차가운밤 어름에 비치는 고고한 자태를 엿볼 수 있다.

⑨ 광석(鑛石)~오곡(五曲)의 계류(溪流)가 흘러 내려 폭포를 이루고 조담(槽潭)이 되는 계간(鷄澗)가에 넓은 돌이 있다. 이는 「광석와월(鑛石臥月)」의 제영(題詠)과 관련이 있는데 반듯이 누워 푸른 하늘의 달을 보고 장마 뒤에는 흩어지는 맑은 구름을 보며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던 평평하게 단정히 앉은 바위이다.

⑩ 원규투류(垣竅透流)~오곡문(五曲門) 옆의 계류(溪流)가 긴 담장 밑으로 통하여 흐르며 수구(水口)가 만들어져 있다. 이 수구(水口)를 통하여 소쇄원으로 들어오는 계류(溪流)를 말하는 것인데 「원규투류(垣竅透流)」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⑪ 석가산(石假山)~광풍각(光風閣) 단(壇) 아래 윗쪽의 계간(溪澗) 가에 석가산(石假山)을 조성(造成)하였다. 이는 「가산초수(假山草樹)」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큰 힘 안들이고 만든 인공적인 석가산(石假山)은 형세에 따라 수림이 있고 의연한 산(山)과 들로도 보였다.

⑫ 와송(臥松)~하서(河西)의 시제(詩題)가 걸려있는 긴 담의 위쪽 즉 오곡(五曲)으로 흐르는 계류(溪流)가의 외나무 다리입구(入口)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노송(老松)인데 「단교쌍송(斷橋雙松)」의 제영(題詠)과 관련이 있다.

⑬ 탐암(榻岩)~대봉대(待鳳臺) 밑 벼랑가에 있는 바위로서 여기 앉아 소쇄원을 구경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탐암정좌(榻岩靜坐)」란 제영(題詠)과 관련이 된다.

⑭ 옥추횡금(玉湫橫琴)~탐암 위의 계간(溪澗)가의 바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던 곳이다. 「옥추횡금(玉湫橫琴)」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거문고를 쉬지 않고 튕기니 온 세상에 비길것이 없고 한 곡조 물속 깊이 메아리치니 그 소리 마음에 통하던 곳이다.

⑮ 상암(床岩)~조담(槽潭)과 폭포가 있는 개울가에 바둑을 둘수 있는 평평한 바위이다. 「상암대기(床岩對棋)」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⑯ 수계산보(脩階散步)~하서(河西)의 제영(題詠)이 걸려있던 긴 담 안쪽 공간으로 넓은 뜰에 산책하는 것을 말한다. 「수계산보(脩階散步)」의 제영(題詠)과 관련되며 세상의 어지러운 생각을 잊어버리고 고요히 산책하면서 마음을 음미하던 곳이다.

⑰ 괴석(槐石)~오곡문(五曲門) 북쪽의 오암(鰲岩)뒤쪽 담장 가에 있는 느티나무 밑의 돌이다. 「기수괴석(倚睡槐石)」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이곳에서는 때때로 혼자 앉아 졸음을 즐기던 곳이다.

⑱ 조담(槽潭)~오곡(五曲)의 계류가 바위를 타고 내려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이를 조담(槽潭)이라 했다. 「조담방욕(槽潭放浴)」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작은 못은 푸른데 들여다보면 바닥이 보이고 여기서 목욕을 하고 나면 불신(不信)한 인간세상(人間世上)의 모든 티끌이 정결히 가셔졌다.

⑲ 협로수황(夾路脩篁)~소쇄원 입구의 무지개 다리를 건너 들어가면 좁은 길가에 있는 울창한 죽림(竹林)을 말한다. 「협로수황(夾路脩篁)」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⑳ 총균(叢筠)~하서(河西)의 제영(題詠)이 걸려있던 긴 담안의 수계산보(脩階散步)하던 뜰 옆에 심어진 돌위의 두어 무더기 대나무를 말하며 「총균모조(叢筠暮鳥)」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㉑ 모조(暮鳥)~총균(叢筠)의 대나무에 잠자려고 날아드는 저녁새를 말하며 역시 「총균모조(叢筠暮鳥)」의 제영(題詠)과 관계된다.

㉒ 도오(桃塢)~광풍각(光風閣) 뒤에 단(段)을 쌓고 심었던 복숭아 꽃나무를 말한다. 「도오춘효(桃塢春曉)」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봄에 복숭아 꽃밭에 드니, 붉은 꽃이 자욱한 새벽 안개를 헤치고 바위골 아득히 피어, 마치 무릉계(武陵溪)를 거니는 것 같았다.

㉓ 동(桐)~대봉대(待鳳臺)와 초정(草亭)옆에 서 있는 늙은 오동나무로 「동태하음(桐臺夏陰)」과 「오음포사(梧陰瀑瀉)」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㉔ 유정(柳汀)~소쇄원 입구의 무지개 다리를 넘어서 협로수황(夾路脩篁)의 대나무 숲을 지나 들어오면 계류 위에 투죽위교(透竹危橋)의 대나무 다리가 설치되었고 이 다리를 건너 서면 개울가 단(段) 위에 큰 버드나무가 서 있다. 이 버드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유정영객(柳汀迎客)」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소쇄원을 찾아 온 손님이 지팡이를 두드리며 신호를 보내면 낮잠을 자던 주인(主人)이 깨어 의관을 채 갖추지도 못하고 나가서 인사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㉕ 산지순아(散池蓴芽)~소쇄원 입구에 있는 자연석(自然石)으로 축조한 방지(方池)속에 순채나물을 심었던 것을 말한다. 「산지순아(散池蓴芽)」란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순채나물과 농어회가 먹고 싶어 벼슬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옛중국 진(晉)나라 장한(張翰)의 순갱로회(蓴羹鱸膾)의 풍류(風流)를 연상시켰다.

㉖ 자미(紫薇)~소당(小塘)과 물방아 사이에 서 있는 목백일홍 나무를 말하는데 「추간자미(漣澗紫薇)」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세상의 모든 꽃이 열흘 가는 향기가 없거늘 어찌 하여 산골 저쪽은 백날을 붉어 아름다운가를 시로 썼던 나무다.

㉗ 파초(芭蕉)~제월당(齊月堂) 단(段) 밑의 서쪽 담안에 있는 파초를 말하며 「적우파초(滴雨芭蕉)」란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비가 오는날 떨어지는 빗방울에 처졌다 올랐다 춤을 추고 고향 그리운 노래에 비할 수 없으니 안타깝게 적막을 깨던 파초이다.

㉘ 애양단(愛陽壇)~하서(河西)의 소쇄원 48영제(詠題)가 걸리어 있던 긴담의 안쪽 꺾어지는 담을 말하는데 여기는 겨울에 별이 들면 따뜻한 공간이었다. 「양단동오(陽壇冬午)」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㉙ 포(瀑)~원규투류(垣竅透流)의 수구(水口)를 통하여 담안으로 흘러든 계류(溪流)가 오곡(五曲)의 물구비를 이루면서 바위를 타고 흘러 조담(槽潭)을 만들고 다시 폭포로 되어 밑으로 흐르는데 이 폭포를 말한다. 「위암전류(危巖展流)」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계류는 깨끗한 돌에 흘러내리고 한돌로 한계곡을 이루었는데 폭포가 중간에 펼쳐지고 기운 벼랑은 하늘이 빛은 경승이다.

㉚ 행음(杏陰)~소쇄원 윗쪽의 외나무다리 앞에 서 있는 은행나무를 말하는데 「행음곡류(杏陰曲流)」의 제영(題詠)과 관련된다. 오곡(五曲)으로 흐르는 계류에 그늘을 주었다.

㉛ 김하서장원사십팔영수제(金河西長垣四十八詠手題)~백자의 긴담이 가로로 서 있는데

그 담에 김인후(호 하서, 河西)의 시제(詩題)가 걸리어 있었다. 「장원제영(長垣題詠)」의 제영(題詠)과 관련되며 마치 병풍처럼 소쇄원을 둘러 서 있었다.

㉔ 오곡문(五曲門)~계류가 흘러드는 계곡의 윗쪽 담에 작은 협문(夾門)이 있는데 이 문의 이름이다.

㉕ 행정(杏亭)~소쇄원 입구의 대박가에 서 있는 은행나무에 행정(杏亭)이라 새겼는데 이는 이 은행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자(亭子)라면 집이 그려져야 하는데 집이 없다. 건물지조사(建物地調査)가 필요(必要)하다.

㉖ 황금정(黃金亭)~소쇄원 입구의 큰 거목 3주 밑에 황금정(黃金亭)이라 새겼는데 여기에 정자(亭子)가 있었는지 이도 건물지조사(建物地調査)가 필요(必要)하다.

㉗ 고암정사(鼓岩精舍)~고암(鼓岩)은 양산보(梁山甫)의 둘째 아들 호이며 양산보(梁山甫)가 살아 있을 때는 없었던 것이며 둘째 아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 세운 건물(建物)로 보인다.

㉘ 부훤당(負暄堂)~소쇄원의 생활공간의 집이다. 소쇄원 48영(詠)에는 보이지 않는다.

㉙ 약박(略約)~소쇄원 위쪽의 오곡류(五曲流) 계간(溪澗) 위에 설치한 외나무다리로 처음부터 있었다.

㉚ 죽림재(竹林齋)~소쇄원 위의 담 밖에 있던 집이다.

㉛ 교(橋)~소쇄원에 들어가는 입구(入口)에는 무지개형의 목교(木橋)가 있었다.

㉜ 고목(剝木)~오곡류(五曲流)의 계간에서 물을 끌어 소당(小塘)에 대고 다시 물방아에 연결되며 산지순아(散池蓴芽)의 소당(小塘)에까지 물을 대었던 나무흠대가 소쇄원도에 그려 있으나 글씨를 새기지는 않았다. 「고목통류(剝木通流)」의 시제(詩題)가 있고 이는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였고 물의 양이 많지 않았으며 남는 물이 물방아를 돌리고 고기비늘 같이 물이 잘게 빛났던 것이다.

㉝ 애양단(愛陽壇) 공간에 동백(冬柏)이 있다.

㉞ 란(蘭)~매대(梅臺) 밑에 란(蘭)이 있음. 소쇄원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김인후(金麟厚)의 48영(詠)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늙은 돌에 핀 아름다운 이끼가 있고, 낭떨어지에 사는 새, 가을의 단풍, 눈 맞은 붉은 치자, 월계꽃, 계간에 핀 부거(芙蓉)(연꽃), 개울가의 창포(菖蒲), 물가에 즐고 있는 오리, 돌틈에 운치있는 죽근(竹根), 비탈에선 송국(松菊)이 있다. 오곡류(五曲流) 밑의 웅덩이에 친구들과 모여 앉아 술잔을 띄우는 풍류도 있었다.

6. 1574년의 소쇄원(瀟灑園) 관람기(觀覽記)

「괴서석록(避瑞石錄)」에 1574년 4월 23일 고경명(高敬命)이 당시 광주목사(光州牧使) 임훈(林薰)과 함께 서석산(瑞石山)(현 무등산, 現 無等山)을 유람한 기록중 소쇄원(瀟灑園)을 관람(觀覽)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1574년은 소쇄원(瀟灑園) 주인(主人) 양산보(梁山甫)가 죽은지 17년 되는 해이므로 당시의 기록은 소쇄원의 원형(原形)을 엿볼 수 있는 중요(重要)한 기록인 것이다. 이를 옮겨 본다. 「신시(申時, 오후3시~5시)에 소쇄원에 이르렀다. 이곳은 양산인(梁山人)의 구업(舊業)이다. 계류가 집 동(東)쪽에서 흘러드는데 담장을 뚫어 그 물을 통하게 하였으니 물소리도 시원스럽게 아래쪽으로 돌아 내리고 그 위에는 간략한 외나무 다리가 걸려있다. 이 외나무 다리 아래에는 돌 위에 저절로 패인 절구같은 웅덩이가 있는데 이것을 조담(槽潭)이라 부른다. 여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 작은 폭포를 이루었는데 그 소리의 영롱함이 거문고를 탕기는 소리와 같다. 조담(槽潭)위에는 또 노송(老松)이 반굴하여 누운 덮개와 같이 담면(潭面)을 가로질러 나갔다. 작은 폭포의 서쪽에는 작은 집이 있는데 그 완연함이 마치 채색한 유람선 같았다. 그 남쪽에는 돌이 여러 층으로 높이 쌓여있고 작은 정자로서 나래를 삼았는데 그것은 모양이 우산을 펴놓은 것 같았다. 바로 처마 앞에는 벽오동이 서 있는데 매우 오래되어 가지가 절반은 썩어 있었다. 정자밑에는 못을 팠는데 통나무에 흠을 파서 골물을 끌 어넣고 있었으며 못의 서쪽에는 둥치가 튼 대숲이 있는데 그 빼어난 양이 옥돌을 즐비하게 세운 것 같아 완상(玩賞)할만 하였다. 대나무 숲 서쪽에는 연못이 있으며 돌로서 꾸민 작은 못이 있다. 이 대밭 아래로 하여 연못을 지나 북쪽에는 또 물방아 일구가 있다. 내가 본 바로는 맑고 깨끗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그 물사(物事)는 하서(河西)의 48영(詠)으로 다한 바이다.

주인(主人) 양군자(梁君子)(순, 淳)는 선생(先生)을 위해서 술을 준비해 두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식영정(息影亭)에 당도하였다. 이곳은 즉 강숙(剛叔)(김성달, 金成達)의 별서(別墅)이다. 선생(先生)은 난간에 의지하여 그 완상(玩賞)함이 자못 극진하였다. 고요한 가운데 밤이 되니 처하당(김성달, 金成達)은 촛불을 밝히고 환대를 하였으며 흥이 절정에 다다른 연후에 파하였다」(맹인재(孟仁在) 박물관신문 제 33호, 1973년 11월 1일)

7. 현재(現在) 남아있는 소쇄원(瀟灑園)의 원형(原形)

건물(建物)이나 담장은 그간에 일부 보수(補修)가 있었지만 대체로 원형(原形)을 변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으로 본다. 식수(植樹)는 오랜 세월동안에 자연적(自然的)으로 나는 것도 있고 후인(後人)이 다시 심기도 하며 또 소쇄원도(瀟灑園圖)에 보이는 것 보다 그 면적이나 규모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쇄원 원래의 의도를 간직한 것은 원형(原形)으로 보아 다음과 같다.

① 산지순아(散池蓴芽)의 순채와 고기를 기르던 장방형소담(小塘)은 깊이가 1m 쯤 되고 세로 5.5m, 가로4m 자연석으로 축조한 연못이 남아 있으나 순채나 물고기와 물이 없다.

② 약작(略約)이라 기록한 외나무다리가 오곡류(五曲流)계류 위에 있다.

③ 자미(紫薇)는 약 400년 늙은 나무가 7주(株) 남아 있다.

- ④ 대봉대(待鳳臺) 옆에 가로 2.5m 세로 2.5m의 소당(小塘)이 남아있다.
- ⑤ 광풍각(光風閣)과 제월당(齊月堂)이 남아있다.
- ⑥ 「애양단(愛陽壇)」, 「오곡문(五曲門)」, 「소쇄처사양공지허(瀟灑處士梁公之虛)」의 석판(石板)과 목판(木板)의 글씨가 새겨져 담에 박힌 토석담이 남아 있다. 「소쇄처사양공지허(瀟灑處士梁公之虛)」의 글씨는 송우암(宋尤菴)의 글씨이다.
- ⑦ 탑암(榻岩)이 남아있다.
- ⑧ 와송(臥松)은 그대로 있고 노송(老松) 2주(株)가 남아있다.
- ⑨ 천간(千竿)에서 끝나는 토석담과 그담 밑언덕에 삼단(三段)으로 쌓은 식수단이 남아있다.
- ⑩ 원규투류(垣竅透流)의 담밑 수구(水口)가 남아있다.
- ⑪ 괴석(槐石), 상석(床石), 광석(廣石), 조담(槽潭), 오암(鼈岩)이 있다.
- ⑫ 매대(梅臺) 도오(桃塢)의 자리가 남아있다.
- ⑬ 고목통류(剝木通流)의 물을 대던 나무 홈대일부가 남아있다.
- ⑭ 협로수황(夾路脩篁)의 입구 길가의 대밭이 남아있다.
- ⑮ 오곡류(五曲流)는 옛 대로 흐르고 있다.
- ⑯ 소쇄원도(瀟灑園圖)에 보이는 측백나무가 죽어있다.
- ⑰ 북(北)쪽의 산록에 4단(段)의 식수단(植樹段)과 광풍각(光風閣) 주위단(段)이 남아있다.

8. 원형(原形)이 변형(變形)되었거나 없어진 것

- ① 소쇄원 입구의 무지개다리가 없어지고 콘크리트 다리로 변형되었으며 콘크리트 건물 1동(棟)이 서 있다.
- ② 황금정(黃金亭)이라 새긴 주위의 거수(巨樹)도 없고 정자도 없다.(정자는 건물지 확인 필요)
- ③ 소쇄원 입구(入口)의 행정(杏亭)이란 은행나무가 없다.

- ④ 순채를 길렀던 소당(小塘)의 물이 말라서 물고기 순채 등이 없다.
- ⑤ 투죽위교(透竹危橋)의 대나무다리가 없다.
- ⑥ 유정(柳汀)이라한 손님을 맞이하던 개울가의 버드나무가 없다.
- ⑦ 수대(水碓)라 기록한 물방아가 없다.
- ⑧ 수대(水碓)가 있던 초정(草亭)이 없다.
- ⑨ 소당(小塘) 속에 물고기가 없고 대봉대(待鳳臺) 옆의 초정(草亭)이 없다.
- ⑩ 물을 대던 고목(刳木)이 없다(일부, 一部가 남아있음)
- ⑪ 장원(長垣)에 걸었던 김하서(金河西)의 48영수제(詠手題)가 없다.
- ⑫ 총균(叢筠)이라 새긴 대나무가 없다.
- ⑬ 대봉대(待鳳臺) 초정(草亭)옆의 벽오동나무가 없다.
- ⑭ 애양단(愛陽壇) 옆에 있던 동백(冬柏)나무가 없다.
- ⑮ 오곡류(五曲流)에 그늘을 드리우던 행음(行吟)의 은행나무가 없다.
- ⑯ 광풍각(光風閣) 서(西)쪽과 제월당(齊月堂) 서(西)쪽의 토석담이 없다.
- ⑰ 제월당(齊月堂) 앞의 협문(夾門)이 없다.
- ⑱ 석가산(石假山)이 없다.
- ⑲ 고암정사(鼓岩精舍) 부훤당(負暄堂)이 없고 그 자리에 왜식(倭式) 기와집 두채가 있다.
- ⑳ 매화(梅花), 복숭아, 치자, 월계화, 국화, 이끼, 지초, 난초가 옛대로 없다.

9. 소쇄원의 구성요소(瀟灑園의 構成要素)

소쇄원(瀟灑園)의 구성요소(構成要素)는 지형(地形), 화목(花木), 누정(樓亭), 수천(水泉), 지당(池塘), 암석(岩石), 기기(機器), 담장, 보도(步道), 조산(造山)으로 나누어 언급해 본다.

- ① 지형(地形)~소쇄원이 놓여있는 지형은 동(東)에서 서(西)로 흘러내리는 창암촌의 계류

(溪流)가 바위로 구성된 계곡의 절경을 통과하면서 오곡(五曲)의 물구비를 이루고 바위로 구성된 천연(天然)의 웅덩이에 고였다가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이 계간(溪澗) 양쪽 산자락에 정연한 인공적(人工的) 단(段)과 담장을 쌓아 구역(區域)을 정하였다. 원래 조원(造苑)을 하지 않아도 자연(自然) 그대로 변화(變化)가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던 곳으로 여기에 인공(人工)의 시설을 살짝 가미한 조원(造苑)이다. 그러기에 지형(地形)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절묘한 경승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② 화목(花木)~소쇄원 48영(詠)등 16세기 기록에 나타나는 화목(花木)으로는 단풍나무, 오동나무, 치자나무, 목백일홍, 대나무, 소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월계화, 버드나무, 등나무와 연꽃, 순채, 파초, 국화, 창포, 이끼가 있다.

18세기 소쇄원도에 새롭게 나타난 화목(花木)은 동백나무, 측백나무, 난초이다.

1976年 10月 23日 정동오(鄭腫昨) 교수(教授)가 조사(調查)한 소쇄원 화목중(花木中) 앞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나무, 능소화, 검팽나무, 팽나무, 편백나무, 산수유, 산사나무, 감나무, 줄사철나무, 호도나무, 뚝향나무, 음나무, 리기다나무, 앵도나무, 왕벗나무, 석류나무, 왜철쭉이 들어 있었다. (소쇄원의 조경식물, 호남문화연구제구집 전남대학교 1977, 瀟灑園의 造景植物, 湖南文化研究第九輯 全南大學校 1977) 이렇게 새롭게 들어갔거나 조화되지 아니하는 화목(花木)의 수정작업(修景作業)이 필요(必要)하다.

③ 누정(樓亭)~소쇄원의 건물(建物)은 계간(溪澗)을 건너서 정원 서쪽의 아래쪽 산자락에 배치된 것이 제월당(齊月堂) 고암정사(鼓岩精舍), 부훤당(負暄堂) 광풍각(光風閣)으로 잠을 자거나 수학(修學)하는 기능의 건물로 정원을 감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간(溪澗)을 건너지 않고 남으로 배치된 지당(池塘)이 있는 공간에는 초정(草亭)이 2동(棟)있는데 이는 정원을 감상하거나 물방아를 보호하는 것으로 자거나 수학(修學)하는 기능의 정자는 아니다. 입구의 황금정(黃金亭)과 행정(杏亭)의 건물(建物)은 소쇄원도에는 글자로만 새겨있고 건물은 없으며 소쇄원 48영(詠)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건물지의 조사(調查)확인이 되어야 하겠다. 죽림재(竹林齋)는 정원밖에 있다.

④ 수천(水泉)~자연계류(自然溪流)가 흐르는데 이 물이 담장밑 수구(水口)를 통하여 흘러들게 하였고 오곡(五曲)의 변화를 이루면서 흘러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폭포가 되며 또 이 물을 나무흙대로 인수(引水)하여 2개의 지당(池塘)에 대고 또 물레방아를 돌게 하였다. 샘은 오곡문(五曲門) 위에 하나 있다. 식수(食水)로 사용하였다.

⑤ 지당(池塘)~지당(池塘)은 하나는 정방형(正方形)(2.5m x 2.5m)이며 하나는 장방형(長方形)(5.5m x 4m)인데 물 깊이는 1m 정도이다. 모두 자연석(自然石)으로 축조하였다. 조선시대지당(朝鮮時代池塘)은 기본(基本)이 방형(方形)이며 궁(宮)의 지당(池塘)은 장태석(長臺石)으로 축조되었지만 민가(民家)의 것은 자연석(自然石)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쇄원에서든 이를 따르고 있다. 지당(池塘)에는 섬이 없다.

⑥ 암석(岩石)~자연계곡(自然溪谷)의 바위에다 이름을 붙여 기능과 시정(詩情)을 주기도 하였다. 오암(鰲巖), 괴석(槐石), 광석(廣石), 상석(床石), 탑암(榻岩) 등(等)이 있다. 따로 괴석(槐石)을 배치한 것은 없다.

⑦ 기기(機器)~정원의 기기(機器)로서는 물레방아와 물을 인수(引水)하는 물홈대가 있다.

⑧ 담장~소쇄원은 자연(自然)의 경승지 한 굽을 터잡아 인공적(人工的)인 질서의 담을 쳐서 조원(造苑)의 구역(區域)을 설정하였다. 담은 토석담으로 자연(自然)에 부조화(不調和)를 주지않기 위하여 황토색담으로 기와를 덮은 초석담을 설치하였다. 이 담에는 하서(河西)의 소쇄원 48영(詠)과 명현(名賢)의 글씨 등을 목판(木板)이나 석판(石板)에 새겨 담벽에 조화롭게 장식하였다. 흡사 정원의 담이 명필(名筆)의 서화(書畫) 병풍처럼 설치(設置)된 것이다. 시정과 사색과 수학(修學)의 기능을 얻을 수 있게 만든 담이었다.

⑨ 조산(造山)~소쇄원에는 광풍각(光風閣) 동쪽에 석가산(石假山)이 있었다. 규모는 아주 작은 축경식의 석가산(石假山)이었으며 형세에 따라 수림(樹林)이 있고 산(山)이 있고 들이 있으며 들꽃과 작은 소나무가 심어졌다.

⑩ 보도(步道)~소쇄원에 들어가려면 입구(入口)의 무지개 다리인 목교(木橋)를 지나서 협로수황(夾路脩篁)의 좁은 대밭길을 올라 투죽위교(透竹危橋)의 대나무 다리를 건너 유정영객(柳汀迎客)의 정원에 이른다. 정원 내의 보도는 푸른 이끼가 자욱한 바위길과 소쇄원 48영(詠)이 걸리어 시정(詩情)을 느끼는 수계산보(脩階散步)의 공간과 오곡(五曲)의 계류위를 외나무 다리로 건너면서 위험을 느끼는 변화를 주었다. 소쇄원 원내를 돌면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경관과 귀로 들을 수 있는 영롱한 물소리와 물방아소리, 새소리 등이 있고 시문(詩文)을 통한 시정(詩情)의 사색을 느끼면 치자등 화목(花木)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적(嗅覺)의 효과도 있다. 보도(步道)는 정적공간(靜的空間)과 동적공간(動的空間)의 반복적 변화를 주기도 했다.

10. 결어(結語)

소쇄원(瀟灑園)은 양산보(梁山甫)가 기묘사화(己卯士禍) 이후 어지러운 세상(世上)을 등지고 은둔생활(隱遁生活)을 하던 별서(別墅)로서 현실(現實)을 초월한 자연주의적(自然主義的) 원림(苑林)이다.

당시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선비들은 자연(自然)으로 돌아가 순수 학문에 열중하고 사색(思索)하는 것이 큰 이상(理想)이었다.

이황(李滉)(1501-1570)의 도산서당(陶山書堂)이나 조식(曹植)(1501-1572)의 두류산(頭流山) 산천재(山天齋)나 이언적(李彦迪)(1491-1553)의 옥산(玉山) 독락당(獨樂堂) 등(等)이 모두 경승에 위치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소쇄원(瀟灑園)에는 맑고 곧은 선비의 정신이 흐르고 사람이 본연(本然)으로 돌아간 순수한 심성(心性)의 품격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자연(自然) 그 대로이거나 경승에 도취된 휴식이 아니라 학문(學文)과 수도(修道)와 유희와 소박한 생활(生活)이 융합되는 공간이다.

특히 소쇄원(瀟灑園)이 있는 지곡리(芝谷里)는 김성달(金成達)이 세운 식영정(息影亭)과 정철(鄭徹)의 환벽당(環碧堂)이 있어 소쇄원과 더불어 일동지(一洞之) 삼승(三勝)이라 하였다. 소쇄원은 임억령(林億齡), 김인후(金麟厚), 정철(鄭徹), 고경명(高敬命), 김성달(金成達) 등 많은 문사(文士)가 교류하던 곳이다. 양산보(梁山甫)는 처사공실기(處事公實記)에서 당(唐)나

라 이덕유(李德裕)가 평천장(平泉莊)을 조성(造成)하고 그 자제(子弟)에게 평천장(平泉莊)의 나무 하나 돌 하나라도 남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고사(古事)에 따라 자기가 만든 소쇄원(瀟灑園) 역시 남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런 사유(事由)로 하여 소쇄원(瀟灑園)은 비교적 철저히 원형(原形)이 보존(保存)되어 내려온 셈이다.

특히 김인후(金麟厚)의 소쇄원사십팔영(瀟灑園四十八詠) 수제(手題)를 담장에 새겨 장식한 것은 자연(自然)과 시정(詩情)을 융합한 특이한 구성이며 조선시대(朝鮮時代) 정원에서 좀체로 보기 힘든 석가산(石假山)이 조성(造成)되었던 것도 주목되는 것이다. 또 원림(苑林)속에 정원의 기기(機器)로 물레방아를 설치한 것도 특이하다.

소쇄원은 조선시대(朝鮮時代) 별서원(別墅苑)으로서 가장 잘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정원의 연구(研究)를 위한 소쇄도(瀟灑圖)와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이 정원은 한국의 전통적(傳統的) 조원문화(造園文化)를 위해서도 원형(原形)의 복원(復元)이 필요(必要)하며 주기적인 관찰과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곳이다.

參 考 文 獻

1. 瀟灑園事實 卷一二三四
2. 瀟灑園圖
3. 孟仁在, 瀟灑園(박물관신문 1973. 11. 1)
4. 鄭腫昨, 梁山甫 瀟灑園에 對하여(韓國造景會誌 第2號 1973)
5. 鄭腫昨, 瀟灑園의 造景植物(湖南文化研究 第9輯 1977 全南大學校)
6. 鄭在鏞, 조선시대의 정원 瀟灑園(계간조경 1983 4호)
7. 河西先生全集 卷五 詩